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좋은 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예배를 조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느 정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네 가지 필수 요소, 즉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정확히 어떻게, 언제 행할지는 각 교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작은 방주를 만들거나, 갑판을 추가하거나, 지쿠지와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는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방주를 통해 약속의 씨와 함께 동물들과 새들의 대표자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방주 만들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목선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방주의 크기가 규빗 단위로 나와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미터법을 사용하면, 방주는 길이가 137 미터, 폭이 23 미터, 높이가 14 미터였습니다. 실제로 19 세기에 이르러서야 방주보다 더 큰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People often cite the schooner SS Wyoming by way of comparison. This all wooden six masted ship was completed in 1909 and designed to transport coal. Measuring 140 metres long it was 3 metres longer than the ark. This probably makes it the largest wooden ship ever built. The Wyoming was not however a particularly successful ship. It's great length meant that it flexed in heavy seas causing the wooden planks to twist and buckle. This led to constant leaks. The crew had to install and run pumps continually just to keep her afloat. In 1924 in heavy seas she snapped in half with the loss of all 14 crew members.

Many critics argue that Noah's ark would have suffered such a fate. This would not have been the case for a number of reasons.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Noah's ark was designed and protected by God. He “remembered” all on board and kept the vessel safe (Gen 8:1). But also the Wyoming was a masted ship. The sails put additional strain and pressure on the boat's structure. This force contributed to her failure. Noah's ark by contrast was simply designed to float. It didn't have to fight against heavy seas.

So let's remind ourselves of the key features of Noah's ark. The bible tells us it was made from gopherwood. Scholars have been unable to identify what type of wood this was. Possibly it was cypress or even teak. Some however suggest it is not a wood per se but rather refers to a process applied to the wood. So gopherwood may be something similar to modern day plywood. Once complete the ark was coated inside and out with pitch. This helped strengthen the vessel making it better able to withstand impacts and also make it waterproof. The ark had to weather heavy seas and stay afloat for over a year so it certainly needed to be water-tight. Noah and his family wouldn't have had time to be plugging up leaks!

Inside the ark there were three decks that housed numerous “rooms” (literally nests) for the animal, bird and human occupants. On the upper deck was a well appointed games room equipped with a pool table and pinball machine, a small movie theatre and a buffet restaurant famed for its excellent coffee.

At the top of the ark probably running for the entire length of the vessel was a window. Placing the window at the upper level would have allowed for both light to enter and much more importantly ventilation to take place. This would ensure that heat, carbon dioxide and bad odours did not build up and become oppressive or dangerous inside the ark. God, you won't be surprised to learn thinks of everything. The final detail we are given is that there was one door set in the side.

With all the construction details now imparted to Noah God turns next to address the occupants of the ark. That will be the subject of our study today.

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비교 대상으로 범선 SS 와이오밍호를 예로 듭니다. 6 개의 돛대를 가진 이 목조 선박은 1909

년에 건조되었고 석탄 운송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배는 길이가 140 미터로 방주보다 3 미터 더 길었으며,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목조 선박일 것입니다. 그러나 와이오밍호는 그다지 잘 만들어진 배는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길이 때문에 거친 파도에 선체가 휘어지면서 나무 판자가 뒤틀리고 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물이 새어 들어 왔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가리웠지 않도록 펌프를 계속 가동해야 했습니다. 결국 1924 년 거친 파도 속에서 선체가 두 동강 나면서 선원 14 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노아의 방주도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탄 모든 □□□□"기억"하시고 배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창세기 8:1). 또한 와이오밍호는 돛대가 있는 배였습니다. 돛은 배의 구조에 추가적인 부담과 압력을 가합니다. 이것이 결국 배가 침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물에 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의 주요 특징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나무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삼나무나 티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페르 나무가 나무 자체가 아니라 나무를 가공한 방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고페르 나무는 현대의 합판과 유사했을 수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는 인력으로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는 방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충격에 잘 견디게 하고 방수 기능을 더했습니다. 방주는 거친 파도를 견뎌내고 1 년 정도 물에 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방수 기능은 필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누수를 막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세 층의 갑판이 있었고, 각 갑판에는 동물 □,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개의 "방들 rooms"(말 그대로 동자)이 있었습니다. 윗갑판에는 당구대와 핀볼 기계가 갖추진 잘 꾸며진 게임룸, 작은 영화관, 그리고 훌륭한 커피로 유명한 부페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방주의 맨 위쪽에는 아마도 방주 전체 길이에 걸쳐 창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을 윗층에 설치함으로써 빛이 들어올 뿐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환기가 가능했겠죠. 이는 방주 안에 열기, 이산화탄소, 악취가 쌓여 답답하거나 위험해지는 것을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신다는 사실이 당연히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방주 옆 쪽에 문이 하나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다음으로 방주에 누가 탈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17 And behold, I Myself am bringing floodwaters on the earth, to destroy from under heaven all flesh in which is the breath of life; everything that is on the earth shall die.

God had told Noah that man's wickedness, his evil and violence had brought about judgement.

His long-suffering and patience had expired. Man as a consequence of his actions was to be wiped out. Noah, as we saw last week had been informed that he was to build a huge boat.

This we should not forget was in an area that was not adjacent to the sea and in a time in which it had not yet rained. Noah prior to this moment was not privy to what God was doing. Here for the very first time is when Noah learns that God is going to flood the earth. One of the questions raised by this is whether this refers to a local flood or a global flood.

The flood of Noah was a localised flood. This is what some argue. It is in my opinion one of the stupidest arguments put forward by sceptics, and even sadly some professing Christians. I suspect that the Christians who argue for this think that a localised flood sounds more plausible, and therefore more palatable to a sceptical world. Non-believers especially thos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are wholly dismissive of a global flood. Such a suggestion they maintain is simply preposterous. Where would all the water come from and where would it go afterward?

Of course a regional flood begs the question why bother building an ark at all. Why wouldn't God just ask Noah to travel to a place that wasn't going to flood. Lets think about the situation in our

board. He also did not, for very obvious reasons need to take representatives from the aquatic world. This meant no algae, barnacles, clams, crabs, fish, sharks, or even air-breathing mammals such as dolphins, seals, manatees or whales. God would preserve these in the flood waters. It may also not have been necessary to include marine birds. Many seabirds are quite comfortable existing on open water and may not have needed to come onto the ark.

What about amphibians? Today there are an estimated 7000 species of amphibians. But 90% of these are frogs. Frogs are happy in water so it's possible that they too were not included as passengers on the ark.

There is some debate surrounding insects. Dr Jonathon Sarfati notes in his book that plants and insects are not considered to be “living” as far as the bible is concerned. Therefore they did not need to be on the ark. In defence of his position he argues that insects are never referred to as “flesh” in the bible. They do not have blood in their bodies (insects have hemolymph) and they breathe differently to other creatures. It is also worth highlighting that many insect species breed in colonies with a single queen. This makes the idea of having just a single male and a female insect on the ark difficult. So how did they survive the flood? Well perhaps God preserved them on floating vegetation mats or driftwood. Others disagree and think that insects were included as passengers on the ark. Even if they were included insects are small in size and wouldn't have taken up much room. Supposing they were on the ark how many might there have been.

There are a vast array of insect species. We have only identified around 1 million different species but the real figure may be closer to 5 million.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many insect species fall under the same category. For example there are around 400,000 species of beetle. So Noah would only have needed to take two generic beetle kinds onto the ark.

Let us now turn to the question of which animals were taken onto the ark. We return to the question of sorts or kinds.

첫 번째는 조나단 사르파티의 "창세기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존 우드모리씨의 "노아의 방주: 타당성 연구"입니다. 두 책 모두 매우 유익했습니다. 특히 후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 없이도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있는 분이시면 이 책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아는 식물, 균류, 원생생물,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 계 kingdom 의 대표 생물들을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식물원이나 온실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아주 명백한 이유로 수생 생물도 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조류, 따개비, 조개, 게, 물고기, 뱀, 그리고 돌고래, 물개, 바다소, 고래와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포유류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홍수 속에서 보존하실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닷새를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는 많은 바닷새들이 드넓은 바다에서도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서류는 어떨까요? 오늘날 양서류는 약 7,000 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그중 90%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물에서 잘 살기 때문에 방주에 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곤충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조나단 사르파티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식물과 곤충은 "뱀뱀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곤충은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에서 곤충에 대해 "육체 flesh"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 곤충은 혈액이 없고 곤충은 혈림프 haemolymph 를 가지고 있음 다른 생물과 호흡 방식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많은 곤충 종이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군체를 이루어 번식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방주에 수컷과 암컷 곤충 한 마리씩만 있었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곤충들은 어떻게 홍수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떠다니는 식물 덩어리나 유목에 곤충들을 보존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곤충들도 방주에 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령 곤충들이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작아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곤충들이 방주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곤충의 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약 100 만 종이 확인되었지만, 실제로는 500 만 종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곤충 종 species 들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딱정벌레는 약 40 만 종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방주에 두 종류kind 의 딱정벌레만 태우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 어떤 동물들이 탔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다시 '종류sorts 또는 kinds'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On the screen you can see the classification system or taxonomy that is applied to all living things. This system was devised by human beings so we shouldn't necessarily try to force the bible to adhere to man's ideas. The question at hand is where biblical "kinds" (*miyn*) fits in such a scheme. This is significant because the higher we go in the system the fewer animals we'd need on the ark. Or to put it another way we go from the general to the specific as we descend.

I have spoken before about the Canid (dog) kind. Let's use them for our example. Let's descend from the general to the specific. Dogs are classified in the **kingdom** of Animalia. They are in the **phylum** Chordata because they possess a spine, they are in the **class** of Mammalia because they feed milk to their young, are warm bloodied and are covered in hair. They are in the **order** of Carnivora because they exclusively eat meat. Dogs are members of the **family** of Canidae which includes all wolf or dog like creatures. They are in the **genus** of Canis which includes all domestic and wild dogs and wolves. Finally, the domestic dog is classified under the **species** heading Canis lupus,

Now it seems pretty clear that when the bible speaks of "kind" it is not talking about species. This as we discussed previously would have meant far too many animals. In the case of dogs Noah would have needed two wolves, two jackals, two foxes, two coyotes etc. So scholars argue whether the biblical kind is speaking of genus or even family classifications. If it means family then Noah would only have needed to bring approximately 2000 animals onto the ark. Woodmorappe thinks this may be the case, but in order to be as generous as possible he calculated the numbers assuming that "kind" refers to genus. So how many animals were passengers on the ark?

This is what he calculated.

화면에서 모든 생물에 적용되는 분류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성경을 인간의 분류법에 억지로 끼워 맞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성경에 나오는 "종류kind"(miyn)가 이 분류 체계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입니다. 이는 중요한데, 분류 체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분류표의 위에서 아래로 □□□□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전에 개과dog kind(Canid)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개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개는 동물계(Animalia)에 속합니다. 척추가 있으므로 척삭동물문(Chordata)에 속하고, 젖을 먹이고, 온혈 동물이며, 털이 있는 포유강(Mammalia)에 속합니다. 또한 육식을 하므로 식육목(Carnivora)에 속합니다. 개는 늑대나 개와 비슷한 모든 동물을 포함하는 개과(Canidae)에 속합니다. 개는 집 개와 야생 개, 늑대를 포함하는 개속(Canis)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집개는 Canis lupus 라는 **종species** 으로 분류됩니다.

성경에서 "종류kind"라는 단어는 종(species)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종species 을 의미했다면 대단히 많은 동물들을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개의 경우 노아는 늑대 두 마리, 자칼 두 마리, 여우 두 마리, 코요테 두 마리 등을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kind"가 속(genus)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family)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만약 과(family)를 의미한다면 노아는 약 2,000 마리 정도의 동물만 방주에 태우면 되었을 것입니다. 우드모라페는 이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관대하게 "종류kind"가 속(genus)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에는 몇 마리의 동물들이 탔을까요?

그가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ll mammals	7,428 total animals
All birds	4,602 total animals
All reptiles (including creatures we now refer to as dinosaurs)	3,724 total animals
Total	15,754

So let's round up the figure and say that God sent Noah 16,000 animals to house on the ark.

That might still strike you as being a lot of animals. How on earth could Noah find the space to accommodate in some semblance of comfort this number of animals? It's actually not really that difficult. You may remember that last time I told you that the capacity of the ark was equivalent to 522 train box cars. A typical box car can comfortably transport 240 sheep. This would allow you to transport 125,000 sheep sized animals on the ark.

But, this is not the complete picture. According to Woodmorappe's reckoning 89% or 14,021 of all the creatures on the ark were actually sheep sized or smaller. In many cases as say with mice for example considerably smaller. Only 11% or 1,732 of all the animals were larger than a sheep. This would mean that the sheep sized, or smaller animals would occupy 58 of the box cars. The animals larger than sheep could easily be held in 10 box cars. This means that only 68 of 522 (13%) of the box cars are occupied by animals.

This leaves a staggering 454 box cars (87%) free to house Noah and his family as well as allowing ample space to store water, food, other supplies. So there was plenty of room for all.

Now you may object here and point out that elephants, giraffes, rhinos and hippos are large animals. Not to mention dinosaurs. Wouldn't they have needed a whole box car to themselves! But don't forget that it was God who sent the animals to Noah. He did not need to send the largest specimens possible. Why send a fully grown elephant! Juveniles are much smaller. They take up less space, require less food and produce less waste. And, given the need for them to breed and reproduce after the flood it makes better sense to carry younger animals on the ark.

The same holds true for dinosaurs. When we are asked to picture a dinosaur we might think of the Tyrannosaurus Rex that grew between 4 to 6 meters in height and may have weighed between 8000 – 14,000 kg. Or what about the mighty Apatosaurus which could grow to a length of 27 meters. These were big reptiles. How we might wonder could Noah accommodate such large beasts on the ark. I have a couple of comments to make. Firstly, we should note that dinosaurs came in all shapes and sizes. From the very small, such as the Microraptor measuring 77 cm in length to the lumbering giants like the Saltasaurus reaching up to 12 meters in length.

You might therefore not be too surprised to learn that the average size of an adult dinosaurs was comparable to that of a horse.

Secondly, and this seems like a rather obvious thing to highlight but even the largest of the dinosaurs were once small. As reptiles, they came from eggs. The biggest dinosaur egg palaeontologists have discovered was only the size of a football. So a juvenile T-Rex was probably only around 1 metre tall. So, what I'm saying is that an all wise, all knowing God probably sent Noah smaller ones.

Let us turn now to another issue commonly raised by sceptics. It concerns how Noah acquired all the animals. I'm sure you've heard the silly comments people make questioning whether Noah had to travel to Australia to get kangaroos, and then go up to Arctic to get polar bears. Some even go further and question whether Noah would have had to set up elaborate traps to capture animals and then determine whether he had found a male and a female. Such a feat is not easy with some animal species.

Such people need to re-read verse 20 very carefully. Allow me, this is what God said to Noah, “**Two of every kind will come to you to keep them alive.**” So where did Noah have to go to collect the animals? The answer is nowhere, God sent them to him. The difficult, but vitally important job of choosing the correct healthy animals of the right sex was left to the Lord. Who better to do it! All Noah had to do was house them on the ark and care for them until the flood had subsided.

So these lucky 16,000 animals would all come onto Noah's ark so that God might save them.

Let us read on.

려오기 위해 어딘가로 가야 했을까요? 그는 아무 데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건강하고 적절한 성별의 동물들을 선택하는 어렵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
 □□□□ □□ □□□□□□! 노아가 해야 할 일은 그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고 홍수가 물러갈 때까지 돌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운의 16,000 마리 동물들은 모두 노아의 방주에 올라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21 And you shall take for yourself of all food that is eaten, and you shall gather it to yourself; and it shall be food for you and for them.”

It's one thing getting all the animals to, and then onboard the ark but caring and feeding them is another issue altogether. Noah had to provide food and water for 16,000 animals plus his family for over a year. It's interesting to speculate on what exactly they might have eaten.

Noah and the animals would have been able to enjoy a vast variety of fruits and vegetables. At least for the first few weeks. These could have been gathered in the weeks before the flood and stored in boxes or barrels. Root vegetables like potatoes can last for several months if wrapped and stored in a cool place.

Cassava Tubers and the Wax Gourd have been known to remain edible for an entire year. Various methods of salting, pickling or fermenting might have been employed to preserve food stuffs for longer.

It is also entirely possible that Noah and his family were able to grow some food whilst on the ark. Some have speculated whether he might have been able to grow things using either hydroponics or aeroponics. Hydroponics uses a water-based nutrient solution to grow plants, while aeroponics suspends plant roots in the air and delivers nutrients through a mist. There was lest we forget no shortage of water. Did God instruct Noah in how to do this?

Grains such as barley and wheat can easily be stored in barrels or sacks. They would have been the primary source of nutrition on the ark. They are rich in protein and would have provided essential amino acids for Noah and his family. Straw or hay could have been packed in bales. If stored in the right conditions this lasts for a long time and would have provided good fodder.

Would this have been enough?

Well there are a few things we might consider that could have helped Noah. God might have performed a series of miracles. Some have speculated that God may have induced a state of hibernation in the animals. If a kind of “winter sleep” had come over the creatures on the ark they would have required far less food. God may even have reduced their appetites and allowed them to survive on fewer calories than usual.

Also we should not underestimate how shrewd animals can be in adapting themselves to different situations. Given their new sedentary lifestyle they may have simply adjusted to eating a lot less.

But let's assume that this was not the case. That there was nothing miraculous going on. Let's imagine all the animals ate their normal quantity of food. Could Noah have provided for their needs? The answer is yes. Woodmorappe calculated that the volume of required foodstuffs would have only taken up about 15% of the Ark's total volume. In rail box terms this means that 79 would have been filled with food. Drinking water would only have taken up about 9% of the volume. This volume could be reduced further if rainwater was collected and piped into storage containers. This would have allowed Noah to provide his passengers with ample amounts of fresh clean water.

All of this I hope has convinced you that what Noah achieved with God's help was entirely possible. Being a Christian and believing in the literal account given to us here in Genesis doesn't require you to unplug your brain.

Let us finish today with the following verse.

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까자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노아는 16,000 마리의 동물들과 자신의 가족을 1 년 넘게 먹일 양식과 물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추측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노아와 동물들은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처음 몇 주 동안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홍수 몇 주 전에 모아서 상자나 통에 저장해 두었을 것입니다. 감자와 같은 뿌리채소는 포장해서 서늘한 곳에 두면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카사바와 동과(옥스 고드)는 1 년 내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피클로 만들거나, 발효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더 오래 보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식량을 재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경재배나 공중재배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물을 기반으로 한 영양 용액을 사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반면, 공중재배는 식물의 뿌리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미스트 형태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당연히 홍수 동안에 물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

보리와 밀 같은 곡물은 통이나 자루에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방주에서 주요 영양 공급원이었을 것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짚이나 건초는 묶음으로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조건을 맞추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 좋은 사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을까요? 노아에게 도움이 되었을 몇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련의 기적을 행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동면 상태로 유도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방주 안의 동물들이 일종의 "겨울잠"에 빠졌다면 훨씬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의 식욕을 줄여 평소보다 적은 칼로리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모릅니다.

또한 동물들이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동물들은 훨씬 적은 양의 먹이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기적적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동물들이 평소처럼 먹이를 먹었다고 가정한다면, 노아가 동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우드모르페의 계산에 따르면 필요한 식량의 양은 방주 전체 부피의 약 15%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철도 화물칸으로 환산하면 79 칸 정도가 식량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식수는 부피의 약 9%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빗물을 모아 저장 용기에 담았다면 부피를 더욱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아는 동물들에게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노아가 이 모든 일을 충분히 해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머리를 비우고 아무 생각없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2 Thus Noah did; according to all that God commanded him, so he did.

As we have seen over the past couple of weeks God has given Noah a colossal set of tasks to complete. Sometimes we think that God is asking too much of us. But put yourself in Noah's sandals. He is being commanded to build the largest wooden boat ever. A box longer than one and a half football fields and as tall as a four-story building. Inside he is to prepare appropriate rooms or enclosures for the numerous animals that God will send him. As if this were not enough he must also prepare vast quantities of food for his family and these animals. This is no small task. Thi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accomplished quickly and easily. This would take sweat, tears and lots of hard work. So what God was demanding of Noah was His absolute trust and faith. This was an undertaking that required his complete commitment. Did Noah quibble, moan, or complain that it

was too difficult? That's what we would have done. But not Noah. The bible tells us that he did all that God commanded him. What an example for all followers of Christ.

Back in verse nine of this chapter we were told that Noah was a righteous, blameless man who walked faithfully with God. This verse is evidence of that profound faithfulness.

Next time Lord willing we get into the actual flood account.

22 노아가 그와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엄청난 과제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1000 0000 000 000000. 축구장 한 개 반보다 길고 4 층 건물만큼 높은 상자 같은 배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많은 동물들을 위한 적절한 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물들을 위해 엄청난 양의 양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했습니다. 노아가 불평하거나 투덜거렸을까요? 우리라면 그랬겠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본보기입니까!

이 장 9 절에서 노아가 의롭고 완벽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의 깊은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study.

오늘 연구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The ark is the only safe place

We live in a time in which exclusive truth claims are frequently dismissed. What you are saying may be true to you, but it's not true for me. This also applies to matters of faith and salvation. People will often say that there are many ways to God. That a person can be saved in a variety of ways. Some even argue that God will judge the sincerity of a person heart and will accept those from other faiths. This is wishful thinking. This is what God's Word tells us,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Acts 16:31).

That's an exclusive truth claim. There's no wriggle room there. No exceptions. No talk of God welcoming sincere religious people who just happened to follow the wrong faith. It's belief in Jesus Christ or nothing.

Just like for those in Noah's day it was the ark or nothing else. Disaster was coming and God was providing a single means of escape. It was no use fleeing to the mountains or building a tree house. If you ignored God and the ark He had provided you would be lost.

Today it is Christ who is our ark. There is no other way to avoid death and disaster. It is Him or nothing else. Let us not be shy in standing up for this truth and telling others.

1 방주가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번번히 묵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에게 진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진실은 아니

야 이는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 □□□□□□ □□ □□ □□□□, 구원받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의 진심을 판단하시므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 16:31)

이것은 배타적인 진리 주장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앙을 따르는 진실한 □□□□□□□□□□ □□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방주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 □□□□ □□ □□ □□ □□□□□□□□. 하나님과 그분이 마련해 주신 방주를 무시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방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과 재앙을 피할 길은 오직 그분 뿐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2 Do like Noah

What a wonderful example Noah gives us. Not a perfect man, but a righteous and faithful one. A man that did what God commanded. No questioning, moaning, complaining or feeling aggrieved. God told him what to do and he did it. How do we compare? Probably not very favourably.

I often hear people in church leadership bemoan the lack of commitment or effort from their congregations. I don't want to condemn everyone here, but so many today are uncooperative and unhelpful. They want to come to church for an hour, enjoy the worship and then hurry home. They are often reluctant to give anything much in return. Ask them to help out with some work, join a mission group, teach a Sunday school group or serve in the kitchen and the excuses start flowing. They'd love to help but they simply cannot. They are too busy, or they think they don't possess the requisite skills. They forget that if God has called them then He will provide them with what they need. God's not in the business of choosing the wrong people, or people who will be unable to do what is required.

So when God calls how do we respond? Are we full of reasons and excuses for why we are not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Or do we follow Noah lead? Do we simply obey and do? Let us do as Noah did.

2 노아처럼 행하십시오

노아는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본보기입니까!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롭고 신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대로 행했습니다. 의문을 품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 지 말씀하셨고, 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헌신이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비난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협조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도움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돕거나, 선교 단체에 참여 하거나,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교회 주방에서 봉사해 달라고 부탁하면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돕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쁘다거나, 필요한 재능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 당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사람이나, 맡은 일을 감당할 능 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온갖 이유와 변명을 늘어

농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순종하고 행합니까? 노아처럼 행합시다.